

오미크론에도 2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고용률 역대 최고

통계청, '2022년 2월 고용동향' 발표

기저효과로 2개월 연속 100만명대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3만7000명 늘며 2개월 연속 10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취업자가 47만3000명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고용 실적이 드러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3.9%)

늘어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다만 전월(113만5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감소하다가 작년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1월에는 작년 1월 취업자 급감(-98만2000명)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113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100만명대 증가한 것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25만4000명·10.7%), 운수 및 창고업(13만5000명·8.8%), 정보통신업(12만8000명·15.1%)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4만7000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만2000명·-2.8%), 금융 및 보험업(-4000명·-0.5%)에서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1000명, 50대에서 27만2000명, 20대에서 21만9000명, 40대에서 3만7000명, 30대에서 1만5000명 증가했다. 30대 취업자는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45.9%로 3.9%포인트(p) 상승했다. 공무직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0대는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부동산업에서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보건복지업에서 많이 늘었다"며 "30대 40대의 경우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6만7000명(5.2%), 임시근로자는 34만2000명(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12.3%)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1.8%) 늘었다. 2019년 1월 이후 37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9000명(3.0%)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8000명(-4.1%)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6%로 전년보다 2.0%p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6%p 오른 67.4%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9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9000명(-29.5%) 감소했다. 이는 2009년 2월(93만3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저치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 또한 동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취업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3.6%p 내려갔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6.7%p 하락한 20.1%였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2000명(-2.4%)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10만3000명(-4.0%) 감소했으며 구직단념자(51만3000명)도 23만9000명 쪼그라들었다.

서서욱기자

'알뜰폰+자급제' 조합 뜬다...통신비 月평균 3만원 저럼

삼성 '갤럭시S22' 공시지원금 전작 대비 절반 수준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전작 대비 확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자급제 단말+알뜰폰 가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99만9900원인 갤럭시S22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21, 갤럭시Z플립3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통 3사별 갤럭시S22의 공시지원금은 5G 4만원대 요금제 기준 KT 8만5000원 LG유플러스 8만4000원이다. SK텔레콤은 4만원대 요금제가 없다. 5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SK텔레콤과 KT 각각 10만원, LG유플러스 9만8000원이다. 가장 많은 고객들이 선택하는 8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 15만원, KT 14만

7000원, LG유플러스 15만1000원이다.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SK텔레콤(5GX 플래티넘 월 12만5000원) 고객은 18만5000원, KT(5G 슈퍼플랜 프리미엄 초이스 월 13만원) 고객은 24만원, LG유플러스(5G 시그니처 월 13만원) 고객은 23만원의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상, 공시지원금 보다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안은 유통점(판매점) 재량으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 가능했던 보조금을 30%로 상향했지만, 공시지원금 자체가 축소되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사가 공동 부담한다. 다만 얼마씩 부담하는 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갤럭시S22의 공시지원금이 축소된 이유 중 하나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거론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경쟁사가 줄어들면서 공시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삼성전자 자급제 단말 판매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자사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삼성카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S22의 경우 9만9000원의 카드 할인을 받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비교해 할인 혜택에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자급제 단말을 구매해 알뜰폰 유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동 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순증 가입자는 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6만1228명) 증가한 규모다. 이동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의 고개 이달이 3만23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만4799명, LG유플러스 1만7738명 순이었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알뜰폰 요금제와 최고급 스마트폰 조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동통신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해 하반기 알뜰폰 가입자의 단말 구입가가 이동 3사 가입자를 처음으로 앞질러 평균 8만원 비싸졌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의 단말기 실구입가격은 83만원이다. 대신,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가계통신비를 절약하고 있다. 월평균 통신요금은 알뜰폰 가입자 2만4000원, 이동 3사 가입자 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재환기자

'아직 살 안했는데 벌써 봄'...다이어트 필수템

맛·영양 모두 잡은 '포켓도시락' 인기



봄기운이 성큼 찾아왔다. 각종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봄이 반갑지만 한 것은 아니다. 옷차림이 얇아지며 겨울 외투 속에 풍뎡 숨겨둔 뱃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봄은 다이어트 성수기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올 봄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템은 무엇일까. 다이어트 식단부터 자기관리 앱, 운동용품 등 다양한 다이어트 트렌드가 관심을 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 관리도 즐겁게 하는 '헬스플러스'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굶거나 원푸드만 먹는 다이어트보다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단을 내세운 다이어트가 각광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칼로리 부담을 줄이고 맛과 영양까지 모두 잡은 포켓도시락이 인기다. 헬스케어 푸드 전문 기업 브랜드스켈스케어가 출시한 포켓도시락은 한 끼에 198kcal라는 부담 없는 칼로리에 맛과 영양까지 쟁쟁한 식단 관리를 돕는 간편 대용식이다. 2018년 1월 출시 이후 2030 다이어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8초에 하나씩, 하루에 1만개씩 꾸준히 판매돼 누적 판매량 150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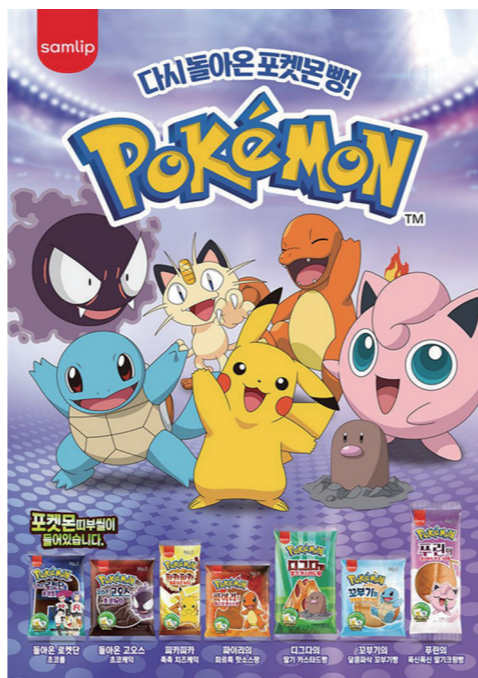
를 돌파했다. 국내산 쌀과 다양한 잡곡으로 직접 지은 밥처럼 찰기가 있는 잡곡밥에 청양고추 닭가슴살, 시금치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12종의 메뉴들로 질리지 않고 매일 새로운 식단을 쟁쟁하게 먹는 것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다이어트 필수템으로 뜨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넷지헬스케어는 운영하는 다이어트 습관 형성 앱 '지니어트'는 미션 아래 식단, 체중, 눈바디, 배변 등 자신의 하루 건강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리워드를 제공해 다이어트에 동기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일상 속 건강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누적 가입자 50만명을 넘어섰고, MZ세대의 자기관리 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며 집에서 간단한 운동용품을 구입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운동하는 홈트레이닝(홈트)도 유행이다. 굶주림을 해소해주는 신체운동 전문 브랜드 '바디아트(BODYART)'는 최근 योग와 필라테스에 필요한 폼롤러, 짐볼, 매트, 아령 등의 매출이 급증했다. 바디아트는 필라테스 링, 태블 등 다양한 운동용품과 함께 소비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홈트 운동법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봄을 맞아 식단 관리, 생활 습관, 운동 등 다양한 방면의 체중 감량 상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노출의 계절인 여름까지 다이어트 상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포켓몬빵 찾아 삼만리...“일부러 생산량 조절” 반응 눈길

재출시 후 19일만에 450만개 판매 돌파

지난달 재출시한 SPC삼립의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16일 SPC삼립에 따르면 포켓몬빵의 판매량은 지난 14일 기준 450만개를 돌파했다. 재출시 19일 만이다. 포켓몬빵은 1998년 처음 출시해 월 평균 500만개를 판매하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6년 인기가 시들해지며 단종됐다. SPC삼립은 '그때 그 추억 소환'을 콘셉트로 16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를 출시했다. 포켓몬빵은 일본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의 몬스터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빵으로, 빵 부지 속에는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피부실' (피에다 붙었다 하는 스티커) 들어 있다. 과거 포켓몬빵 인기의 요인은 피부실이였다. 그 종류만 150여종으로 당시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 이번에도 역시 피부실이 인기 배경이다. 재출시를 마친 포켓몬빵은 '돌아온 고소초코 케익' '돌아온 로켓탄 초코롤'을 포함한 '피카

피카 촉촉치즈케익' '파이리의 하트루 핫소스 빵'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빵' '꼬부기의 달콤파삭 꼬부기빵'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크림빵' 등 총 7종이며, 피부실은 총 159종이다. 과거 피부실을 모으던 청소년들은 어느덧 3040세대로 성장했다. 이들은 추억의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물류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해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는 오픈런에 적극적이다. 일부 소비자는 편의점 앱을 통해 재고를 확인한 뒤 스마트하게 포켓몬빵을 사러 가기도 한다. 중고장터에서는 아예 피부실이 대량 거래되고 있다. 피부실 한 개 값이 빵 1개 가격인 15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뮤우 뮤우 등 희귀한 포켓몬 피부실은 5만원에 팔리기도 한다. 중고장터에는 "포켓몬빵 삼니다"라는 게시물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포켓몬빵 열풍에 편의점 사장님들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포켓몬



빵을 찾는 통에 지친다"는 편의점주 글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이슬비기자

에어부산, 부산~사이판 노선 주 1→2회 증편

일요일·수요일 주 2회 운항

에어부산은 정부의 부산~사이판 노선 주 1회 증편 결정에 따라 기존 일요일에만 운항하는 스케줄에서 수요일을 추가해 주 2회 운항하게 됐다. 주 2회 운항편 모두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5시간10분 간 비행 후 사이판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후 3시10분에 출발해 오후 6시30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사이판 항공편 승객은 ▲사이판 도착시간 기준 하루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서서욱기자



마리아나 관광청은 사이판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5월까지 현지 PCR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움직임에 따라 여행 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역 우수 국가와 무격리 입국 가능 국가 위주로 국제 하늘길을 넓혀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서욱기자